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37호 (2014-16) 발행일 : 2014. 04. 25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본 연구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빈곤아동 가구를 규명함. 분석 결과 우리나라 아동빈곤 집단은 다차원박탈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으로 분류됨

다차원박탈 집단은 근로능력이 있고 노동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함. 이 집단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의 박탈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현물과 서비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주거비과부담 집단은 중간 범위의 소득계층까지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필요함



정은희
사회보장통계센터 부연구위원

1. 논의 배경 및 목적

-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¹⁾
 - 빈곤 가구의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가능성이 높아,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에도 누적되어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음²⁾

* 본 연구는 '정은희 외(2013).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내용 일부를 발췌 및 수정·보완함

1) Duncan, G. and Brooks-Gunn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2)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통계청의 아동빈곤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음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상대적 빈곤율은³⁾ 10%에서 8.6%로, 절대적 빈곤율은⁴⁾ 7%에서 6.4%로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⁵⁾

■ 낮아진 빈곤율만으로 빈곤아동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세 가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은 아동의 빈곤 상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하고 중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2), 즉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수준이 낮아짐. 낮아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율은 빈곤집단의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⁶⁾

- 아동빈곤율의 기준이 되는 아동가구의 구성비율에 따라 빈곤율이 달라지기도 함. 즉, 전체가구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감소가 낮은 소득계층에서 이루어지면⁷⁾ 지표상 아동빈곤율이 낮아짐

○ 둘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은 빈곤 아동의 삶을 반영하지 못함⁸⁾

- 빈곤한 가구의 아동은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지만 소득빈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소득이외의 다양한 차원에서 빈곤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아동빈곤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가구 내 소득이 높아도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⁹⁾. 또한 가구 내 소득이 낮다고 하여도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열악하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할 것임. 따라서 소득은, 아동빈곤의 경우에는 아동의 삶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클 수 있음

○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 또한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아동빈곤율이 낮아지는 시점이지만, 미래의 자원인 아동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성은 있음

■ 아동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욕구와 어려움은 차이가 있음에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특성이나 그 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음

○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이 있는 가구가 겪는 생활상의 궁핍 또는 박탈을 여러 차원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3) 가처분 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1인 가구가 포함된 수치임

4) 정부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며,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5) 김문길, 김태완, 우선희, 이서현(2012). 2012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7) 김은정(2013).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91(2013-21).

8) 이현주 외(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Johnson D. S. & Smeeding T. M. (2012). A Consumer's guide to interpreting various US poverty measures, Fast Focus No. 14-2012, pp.1-7.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아동빈곤 가구의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하여 아동빈곤의 특성 및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분석자료 및 샘플

○본 연구는 제 7차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첫째, 한국복지패널은 빈곤가구를 과대표집하여 빈곤가구의 특성을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임
- 둘째, 한국복지패널자료는 빈곤가구가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결핍들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아동이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결핍 뿐 아니라 가구주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아동의 생활상의 결핍을 함께 포함하여야 하는데, 복지패널은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결핍에 대한 정보 또한 일부 존재함
- 셋째, 제7차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아동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아동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특성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함

○분석에 사용된 샘플은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총 5,731가구임.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608가구임.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샘플은 1,608가구임

■ 분석방법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	
주거소유상태	1. 월세 2. 전세 3. 자가 4. 기타
주거비 과부담	1.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30% 이상 0. 30% 미만
주거생활박탈	1. 쫓겨나가거나, 난방비 못냄 0. 그렇지 않음
식생활	
식생활박탈	1. 균형잡힌 식사를 못함 0. 그렇지 않음
교육	
교육비 과부담	1.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20% 이상 0. 20% 미만
의료	
의료비 과부담	1.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20% 이상 0. 20% 미만
의료박탈	1. 건강보험료 못내거나 병원에 못감 0. 그렇지 않음
고용	
경제활동 참여상태	1. 임시, 일용, 자활, 실업 2. 비경제활동 3. 고용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근로능력	
근로능력	1. 근로불가능 2. 단순근로미약자, 단순근로가능 3. 근로가능
금융	
금융 신용불량	1.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된 적 있다 0. 없다

자료: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아동이 있는 1,608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 먼저 빈곤집단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의 선택이 필요함. 집단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기법이 있음. 판별분석, 요인분석, 잠재집단 분석기법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대부분이 범주형이며 빈곤집단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잠재집단 분석 기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빈곤집단을 규명하고자 함¹⁰⁾
- 아동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아동빈곤을 측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아동기에는 건강과, 주거, 식생활, 교육, 의생활 및 놀이 영역에서의 욕구 충족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됨¹¹⁾. 특히, 건강, 주거, 교육, 식생활과 관련한 영역은 많은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욕구로 제시하고 있음¹²⁾¹³⁾¹⁴⁾
-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영역을 포함하여 이현주 외(2012)의 연구에서¹⁵⁾ 제시한 고용, 근로능력, 및 금융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함
 - 고용, 근로 및 금융과 관련한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모는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임. 아동이 생활하는 가구의 주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박탈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박탈과 같은 의미임
- 그러나 의생활, 사회적 관계망 및 놀이 영역에서의 지표는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표로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및 조작적 정의에 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음

3. 빈곤집단의 유형화

■ 빈곤집단의 수

-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기 이전에, 빈곤집단의 수를 탐색하여 정해야 함
 - 재적 집단분석에서 집단의 수는 우도비 카이제곱 검정과 Entropy, AIC, BIC 와 같은 적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우도비 카이제곱, BIC, AIC 의 경우에는 값이 낮을수록, 추정치가 관측자료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ntropy의 경우(0~1)에는 높을수록 모형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0.8 이상인 경우부터 모형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¹⁶⁾. LO-MENDELL-RUBIN ADJUSTED LRT 검증의 경우, 집단수가 k-1와 k개일 때의 우도비를 비교하여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함

10) 요인분석은 변수의 수준이 연속변수이어야 하고, 판별분석은 집단의 수가 미리 정해져 있음. 이에 반해 잠재집단분석기법은 범주형변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집단의 수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McCutcheon, L. A. (1987). Latent Class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11) Uniceff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New league tables of child poverty in the world's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0,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12)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최균, 서병수, 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pp.85-111.

14) Doyal, L. and Gough, A. (1991). A Theory of human need, Macmillan, London.

15) 이현주 외(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McCutcheon, L. A. (1987). Latent Class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표 2〉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비교

집단수	Likelihood Ratio X2 / df(p-value ¹⁾)	Entropy	AIC	BIC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Value	P-Value
1개	1670.54/6077(1.00)		12910.15	12990.89		
2개	1714.52/6102(1.00)	0.84	12292.04	12458.91	644.65	0.465
3개	1465.51/6085(1.00)	0.79	12072.41	12325.40	249.52	0.004
4개	1344.76/6065(1.00)	0.84	12015.71	12354.82	87.96	0.366
5개	1336.18/6055(1.00)	0.75	11982.83	12408.07	64.33	0.620

주: 1) 카이제곱 검증의 경우 사례수에 민감하여 사례수가 많은 경우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¹⁷⁾

- 먼저, 우도비 카이제곱 검증의 경우에는, 집단의 개수가 3개인 모형부터 낮아지고 있음. Entropy의 경우에는 집단의 수가 4개인 경우 가장 높고(0.84) 다음으로 3개인 집단이(0.79) 높게 나타남. 그러나 LO-MENDELL-RUBIN ADJUSTED LRT 검증 결과, 집단이 3개인 경우와 집단이 4개인 경우에 우도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이 3개인 모형이 선호되고 있음¹⁸⁾

○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결성 및 적합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3개 집단 모형을 선택함

■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및 집단별 사례비율

○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된 박탈 지표별 조건부 응답확률을 살펴보아야 함¹⁹⁾

〈표 3〉 조건부 응답확률 및 집단별 사례할당비율

구분	다차원박탈	주거비과부담	비빈곤
고용형태			
임시일용자활사업	0.44	0.19	0.13
비경제활동	0.32	0.03	0.03
고용주, 자영, 무급	0.15	0.08	0.23
상용	0.08	0.70	0.60
근로능력			
근로불가능	0.03	0.00	0.00
미약, 단순근로	0.21	0.00	0.00
근로가능	0.77	1.00	1.00
주거소유			
월세	0.53	0.03	0.12
전세	0.18	0.98	0.09
자가	0.20	0.00	0.74
기타	0.09	0.00	0.06

17) McCutcheon, L. A. (1987). Latent Class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18) 집단의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포함하여, 설명 가능성 및 모형의 간결성 등을 고려해야 함. 집단이 4개일 경우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도비의 차이가 집단이 3개일 경우를 선호하는데 이는 모형의 간결성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집단이 4개일 때의 모형은 집단의 3개일 때의 모형과 빈곤집단의 유형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음. 즉, 4개의 집단으로 할 경우, 두 개의 집단이 유형이 유사하게 나타나, 두 집단이 다른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설명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음

19) 조건부 응답확률이란 분석대상 가구가 특정 집단에 소속이 될 경우, 각 박탈 지표의 특정범주에 응답할 확률을 말함

〈표 3〉 계속

구분	다차원박탈	주거비과부담	비빈곤
주거비 과부담			
주거비 과부담임	0.24	0.46	0.03
그렇지 않음	0.76	0.54	0.97
주거생활 박탈			
주생활 박탈임	0.29	0.00	0.01
그렇지 않음	0.72	1.00	0.99
식생활박탈			
식생활 박탈임	0.24	0.00	0.01
그렇지 않음	0.76	1.00	0.99
교육비 과부담			
교육비 과부담임	0.20	0.19	0.18
그렇지 않음	0.80	0.81	0.82
의료박탈			
의료박탈임	0.11	0.01	0.01
그렇지 않음	0.89	0.99	0.99
의료비 과부담			
의료비 과부담임	0.14	0.01	0.00
그렇지 않음	0.86	0.99	1.00
신용불량가구원			
신용불량가구원임	0.31	0.01	0.01
그렇지 않음	0.69	0.99	0.99
사례할당비율	10.80	21.60	67.60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잠재적 집단 분석결과, 집단의 수는 3개로 나타났으며, 각각 다차원박탈 집단, 주거비과부담 집단, 비빈곤 집단으로 명명하여 유형화 하였음

○〈표 3〉의 두 번째 열은 다차원박탈 집단을 나타냄

- 다차원박탈 집단의 고용형태는 다른 집단과 달리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활과 같은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형태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음(0.44)
- 주거 소유상태 또한 월세일 가능성이(0.53) 다른 집단에 속할 경우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식생활 박탈의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 낮은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음. 비록 낮은 응답확률이지만, 다차원박탈 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식생활 박탈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0.24) 나타남
-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에는 두 번째 집단인 주거비과부담 집단에 비해 응답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거생활 박탈의 경우에는(0.29)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확률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선택하는 상황을 포착한 것이라 판단됨
- 의료와 관련한 영역에서는 세 집단 모두 높은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다차원박탈 집단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의료비 과부담 및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료보험 수급자격을 정지 당하는 등의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을 확률 또한 다차원박탈 집단에서 가장 높게(0.31) 나타남
- 요약하면, 다차원박탈 집단은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음

○〈표 3〉의 세 번째 열은 주거비과부담 집단을 나타냄

- 주거비 과부담 지표를 살펴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응답확률(0.46)을 보이고 있음. 다른 지표에서는 주거비과부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비율의 박탈확률을 보임

○ <표 3>의 마지막 열은 비빈곤 집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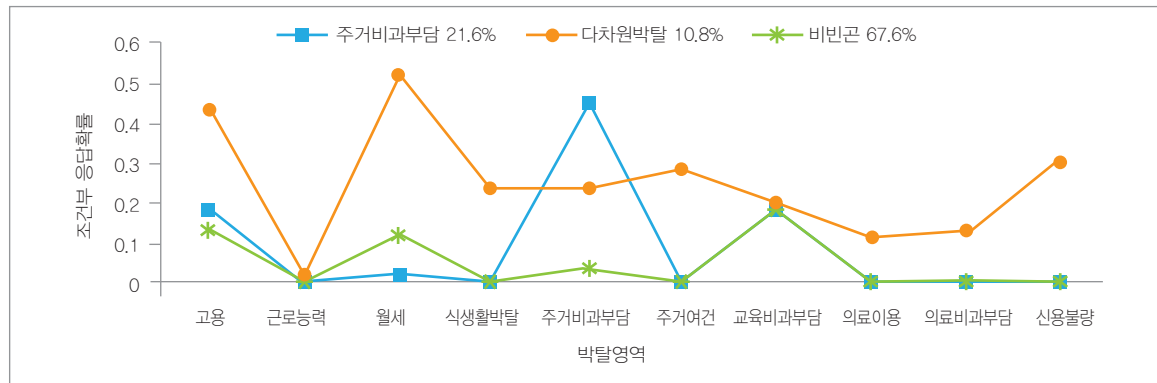
- 다른 집단에 비해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고, 자가일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박탈과 관련한 지표에서 응답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따라서 비빈곤 집단이라 명명함

○ <표 3>의 마지막 행은 집단별 사례비율이 나타냄

- 다차원박탈 집단의 사례비율은 10.8%로 나타남. 주거비과부담 집단의 경우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6%로 나타나고 있음. 비빈곤 집단의 사례비율은 67.6%로 나타남

○ <그림 1>은 잠재집단에 따라 영역별 박탈범주에 속하는 조건확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 그림에서 박탈범주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집단별 특성을 이해하기 용이함

[그림 1] 아동빈곤집단의 유형



4. 정책적 함의

■ 소득기준의 빈곤집단 규정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집단을 과소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

○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다차원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아동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남

- 분석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는 아동빈곤가구가 과소추정 되어있음. 그림에도 소득중심의 아동빈곤율(상대빈곤율: 8.6%, 절대빈곤율: 5.4%)보다 더 높은 비율(10.8%)의 아동가구가 다차원적인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소득빈곤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음

■ 소득기준 정책대상자 선정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집단의 일부를 빈곤집단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정책의 수혜자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 관련한 정책들의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타 프로그램들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빈곤과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소득 뿐 아니라,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보들을 이용한 방안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주거비과부담 집단의 경우에는 중간소득계층으로 까지 범위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중심의 빈곤 집단 판정체계는 이들 집단에 속하는 일부 가구가 빈곤집단으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주요한 빈곤정책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만큼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의 빈곤정책과 더불어 각 영역과 관련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빈곤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음

○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이 생활상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통합되어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대해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줄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료 지급을 위한 소비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음
- 주거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다차원 박탈 집단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움.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욕구는 식생활 분야에서의 소비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식생활 영역의 욕구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각 영역과 관련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빈곤한 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음

- 다차원박탈 집단의 가구주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집단임. 노동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가능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첫째,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상의 박탈을 해결하기 어려움
- 둘째,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박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음
- 셋째, 가구 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함. 예를 들면, 가구원 수가 많거나, 가구 내 만성질환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따라서 아동빈곤가구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의 박탈을 감소시키는 현물급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주거비과부담 집단은 중간소득 계층까지 포괄하고 있음

○ 가구내 저축이나 자산은 아동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임. 따라서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임

- 아동빈곤율이 낮아지면서 아동빈곤에 대한 관심이 소외되어 왔음.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 대응 정책들을 검토하여 빈곤아동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집필자 | 정은희 (사회보장통계센터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183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